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multiple rows of TV program schedules.

“피로회복제 같은 영화됐으면”

‘공조2: 인터내셔널’ 유해진
현빈·다니엘 헤니와 호흡
7일 개봉 한가위 유일 신작



유해진 /CJ ENM 제공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의 강진태(유해진 분)는 가장으로서 면모가 돋보이는 캐릭터다. 집에서 유튜브로 소일거리를 하는 처제 박민영(임윤아)에게 용돈을 쟁겨 주고, 전편에서 남편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아내 박소연(장영남)은 강진태가 또 사고 치지 않고 대출금 갚을 월급만 따라따박 받아오길 원한다.

FBI 요원 잭(다니엘 헤니)의 합류로 새롭게 형성된 삼각공조 체제에서도 강진태는 만행 노릇을 한다.

1일 화상으로 만난 유해진은 “림철령과 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1편을 본 관객에게 낯설지 않은 강진태로 다가가는 것이 제 몫”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소한 모습의 강진태, 낯설지 않음의 연장이면 좋겠습니다.”

수사한답시고 밖에서 사고 치면 아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강진태지만, 형

사로서 능력은 만만찮다. 미국과 북한에서 파견된 정예요원의 갈등을 조율하는 동시에 정보당국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유해진은 영화의 절반인 코미디를 주로 담당하지만, 전편에 비해 좀더 정교해진 액션도 구사한다.

‘공조’는 속편 역시 남북한 형사의 버디 무비다. 강진태가 가족에 치이고 승진에 목매는 생계형 형사로 5년을 지내는 사이 림철령은 꽤나 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강진태의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며 농담도 건네는 여유가 생겼다. 강진태는 림철령에게 “재밌어졌다”고 말한다.

오는 7일 개봉하는 ‘공조2’는 추석 연휴 유일한 신작 한국영화다.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웃고 액션만 보고 끝나는 거 아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면 됐지 뭐’라고도 할 수 있죠. 피로회복제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 박진주·이이경 합류

3일 방송 출연 시너지 기대

배우 박진주, 이이경이 MBC TV 대표 예능 ‘놀면 뭐하니?’에 새 멤버로 합류한다. ‘놀면 뭐하니?’ 측은 “박진주, 이이경이 새 멤버로 확정됐다”며 “기존 멤버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갈지,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주간 재정비를 위해 휴방하고 오는 3일 재개하는 방송부터 출연한다.

영화 ‘씨니’(2011)로 데뷔한 박진주는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 연기를 선보였다. WSG워너비 프로젝트로 ‘놀면 뭐하니?’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이경은 예능 ‘심야괴담회’, ‘나는 솔로’, ‘떡볶이집 그 오후’ 등에서 입담과 재치를 발휘했고 최근 개봉한 영화 ‘육사오’



박진주(왼쪽)과 이이경 /MBC ‘놀면뭐하니?’ 제공

에서도 코믹 연기로 주목받고 있다. ‘놀면 뭐하니?’에는 유재석, 정준하, 하

하, 신봉선, 이미주가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signs.